주님 공현 대축일 강론(2020년 1월 5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순대국 좋아하십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순대국입니다. 원래 순대국에는 순대는 거의 없고, 돼지 머릿고기가 들어가죠. 그래서, 순대국이 부산 지역에서는 돼지 국밥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순대국 하나만 시켜 놓으면, 식사도 되고, 술 안주도 되니까 서민들 음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또 술마시고 난 다음날 숙취해소에도 아주 좋습니다.

제가 순대국을 아주 좋아하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순대국에 얽힌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날 순대국 집에서 순대국 한 그릇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더니, 한 일곱 여덟살 정도 되었을까한 여자 아이가 어른의 손을 이끌고 느릿느릿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지저분한 행색은 누가 보아도 첫눈에 거지나 노숙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을 본 주인 아주머니가 약간 인상을 찌푸리면서 말합니다. “아이고, 요즘 손님도 별로 없는데… 다음에 오면 안될까?”

주눅이 든 여자 아이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저… 아주머니, 저희 순대국 먹으러 왔는데요… 오늘이 우리 아빠 생일이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그들이 행색이 거지같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손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좀 미안한 듯 말합니다. “그래, 알았다. 저쪽으로 가서 앉거라.”

몸이 불편해 보이는 아버지를 자리에 앉히고 나서, 그 여자 아이가 계산대로 가더니 손에 꼭 쥔 눅눅해진 천원짜리 몇장과 동전 한 주먹을 꺼내서 계산을 먼저 합니다. “순대국 두 그릇 주세요.” 그러고는 이어서, “저희 아빠는 장님이세요. 식사하는 것이 느리지만, 되도록 빨리 먹고 나갈께요.”

잠시후, 순대국 두 그릇이 테이블에 준비되었습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소금 넣어 줄께…”

그렇게 말하고는, 소금대신 자기 그릇에 들어 있는 순대며 고기들을 다 떠서 앞을 못보는 아빠 그릇에 담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빠, 이제 됐어. 빨리 먹어… 밥떠. 내가 김치 올려 줄께.”

수저를 들고 있는 아빠의 두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주인 아주머니도 눈물을 훔치더니 미안한 듯 주방으로 들어가버립니다. 지켜보던 다른 손님들도 그저 묵묵히 아무 말 없이 그릇만 쳐다보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그 여자 아이와 맹인 아버지가 일어섰을때, 주인 아주머니가 검은 봉지 하나를 건네 면서, “오늘은 너희 아빠 생일 날이니까 저녁에는 이 안에 든 음식으로 아빠하고 같이 저녁 먹거라.”

앞을 못보는 딱한 처지의 그 아빠와 어린 여자 아이의 따뜻한 효심이 아름답기도 했고, 또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문전박대 하려고 했지만, 미안해 하면서, 그들을 챙겨주는 식당 주인 아주머니의 모습도 따뜻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다고 해도, 세상 곳곳에는 따뜻한 사랑과 희망의 빛을 밝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겉모습은 괜찮게 보여도 마음이 아주 천한 사람도 있고, 겉모습은 별볼일 없어 보여도 마음이 아주 귀한 사람도 많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머리로만 생각했던 사랑을 마음으로 끌어내리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살 때, 더 많은 축복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지저분 한 곳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서, 세상의 어둠과 가난을 희망의 빛으로 밝혀 주었습니다. 가난과 천한 것들을 축복해 주었고,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이제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빛과 희망과 진리를 찾아 아주 먼 이국땅, 동방에서 부터 부지런히 멀고 먼 길을 달려온 이방인들에게도 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목격됩니다.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지내는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공적으로, 즉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몇 몇 순박한 목동들에게만 목격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로소 동방 박사들에 의해서 세상에 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별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 마을까지 다다르게 되었는지 아주 극적인 순간을 전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먼 길을 떠나 세상의 빛을 찾아 온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들이 따라온 커다란 별은 희망과 기쁨과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은 그 빛을 목격하고, 자신의 먼 여정을 마치면서, 감사와 행복에 겨워서, 아주 귀한 선물을 내어 놓습니다.

이 세 사람의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쫓아 그 작은 산골 마을까지 온 이 이야기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진짜로 큰 구원의 빛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세상 모든 민족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진리와 희망과 행복을 찾아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바로 그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지요.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집과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가면서 희망의 빛을 발견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자신의 인생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늘 행복을 찾아 먼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정 이야기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인 셈이죠.

우리는 언제나 머나먼 인생의 여정 길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생 진리의 빛을 찾아 먼 길을 달려온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는 그 빛을 발견한 것처럼, 우리의 긴 신앙의 여정도 마침내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참된 행복과 평화의 빛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인생의 어둠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밝혀 주시기 때문입니다!